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 리더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52억 원

-모투자신탁 177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2014년 11월 7일 종류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5월 25일)

- 클래스 A : 2014년 11월 07일
- 클래스 A-E : 2014년 11월 14일
- 클래스 C-E : 2014년 11월 13일
- 클래스 C-W : 2015년 01월 06일
- 클래스 S : 2014년 12월 0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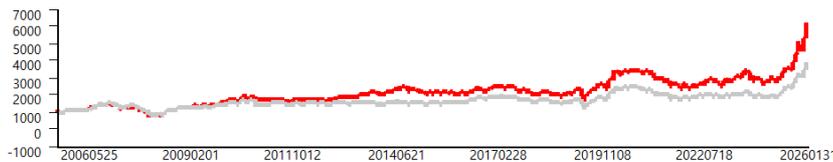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29.08%	28.12%	74.81%	123.29%	133.01%	155.11%	93.41%	520.67%
클래스 A	28.96%	27.60%	73.44%	119.81%	125.53%	142.80%	77.84%	163.39%
클래스 A-E	29.00%	27.80%	73.94%	121.05%	128.17%	147.12%	83.23%	172.64%
클래스 C-E	29.00%	27.77%	73.85%	120.84%	127.72%	146.38%	82.29%	168.04%
클래스 C-W	29.03%	-	-	-	-	-	-	28.61%
클래스 S	29.01%	27.80%	73.97%	121.13%	128.36%	147.44%	83.65%	176.13%
벤치마크	23.97%	27.19%	60.98%	107.53%	109.22%	115.43%	75.54%	291.81%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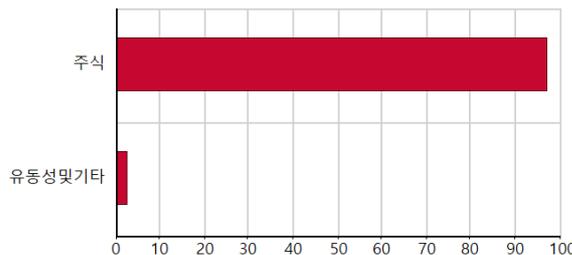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1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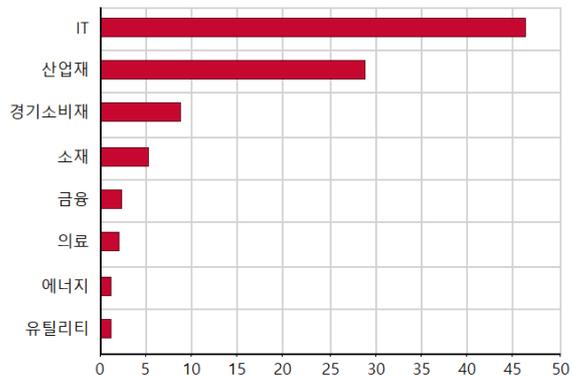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7.0
2	유동성및기타	3.0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46.3
2	산업재	29.0
3	경기소비재	8.8
4	소재	5.3
5	금융	2.5
6	의료	2.3
7	에너지	1.4
8	유틸리티	1.4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1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4.5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7.1
세트렉아이	운송장비.부품	4.6
한국항공우주	운송장비.부품	3.9
SK스퀘어	금융	3.1

종목명	업종명	비중(%)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2.8
미래에셋증권	증권	2.5
세아베스틸지주	금속	2.1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1.9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7% (판매 1%)
- 클래스 A-E : 총 연 1.1% (판매 0.4%)
- 클래스 C-E : 총 연 1.2% (판매 0.5%)
- 클래스 C-W : 총 연 0.7% (판매 0%)
- 클래스 S : 총 연 1.05%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65%, 신탁 0.03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C-E, C-W, S : 없음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월 KOSPI는 전월 대비 23.97% 상승한 5,224.36, KOSDAQ은 24.20% 상승한 1,149.44pt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새해부터 시작된 KOSPI의 랠리는 월 중순 이후 KOSDAQ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생 변수와는 별도로 국내 고유의 수급, 증시 상승 기대감, 주요 업종의 실적 개선세를 기반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 차기 연준의장 불확실성, AI 수익성 우려 등의 변수들이 증시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로봇 관련 밸류가 반영된 자동차, 증시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승한 증권, 지속적인 실적 추정치 상승이 이루어진 반도체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음식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기대감이 해소된 제약, 지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디어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7.0원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대비 상승한 65.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7.8조원), 외국인(6천억원)이 순매수한 반면, 개인(9.7조원)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펀드에서는 2026년 신성장 테마에 대비해 로봇과 우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AI 테마의 확산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SpaceX의 IPO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성장 테마로서의 우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OSDAQ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논의됨에 따라 KOSDAQ 시장 상위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확보하여 지수의 상승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기계, 반도체 업종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건설, 유틸리티, 정유 업종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SpaceX 상장 관련 보도 이후 우주산업 밸류에이션 상승과 관측 위성 관련 비즈니스 본격화로 인한 수혜인 세트랙아이,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입찰 공고에 따른 기대감과 2026년 수주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한국항공우주, 브로커리지 수익의 큰 폭의 증가와 보유기업 평가이의 상승이 예상되는 미래에셋증권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부진한 월별 실적이 발표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된 롯데관광개발,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의 개발 일정이 지연된 우려가 부각된 에이비엘바이오, 주요 고객사 벤더 이탈화 우려와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 이수페타시스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2월 국내 주식시장은 1월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많아진 구간입니다. 상승세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이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상승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실적 추정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증시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AI 모멘텀 역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상승장 조정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어 연준 의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통화 정책 선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급속한 상승세에 따른 숨 고르기 장세나 차익 실현 시도 등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주의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강한 만큼,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주도 세력의 확산 흐름과 섹터별 순환매를 예상합니다.

지수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부담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장입니다. 많이 오를 불편함 외의 지표들이 과열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6년 KOSPI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역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실적은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정치 상향 조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시총 상위 2개 기업이 이끄는 실적 개선으로 인해 지수의 상승 대부분은 실적 개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지수 상승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증시의 선진화,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주주 환원에 대한 책임감 강화에 대한 부분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의 자산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필요성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함이 아닌,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구조 선진화를 위한 행보의 초입 국면입니다. AI 투자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간헐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서버항 투자가 예상보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AI 모멘텀은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AI를 이용한 실질적 서비스 영역 확대로 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예상보다 빠른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SpaceX의 상장으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우주 모멘텀이 더 빠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주 대중주의 성장으로 인해 산업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아 우주 업종에 대한 연중 강세 흐름을 예상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신성장 섹터의 비중을 구축하고, 수출 모멘텀 호조 등을 바탕으로 한 내수 경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높게 보고 비중을 확보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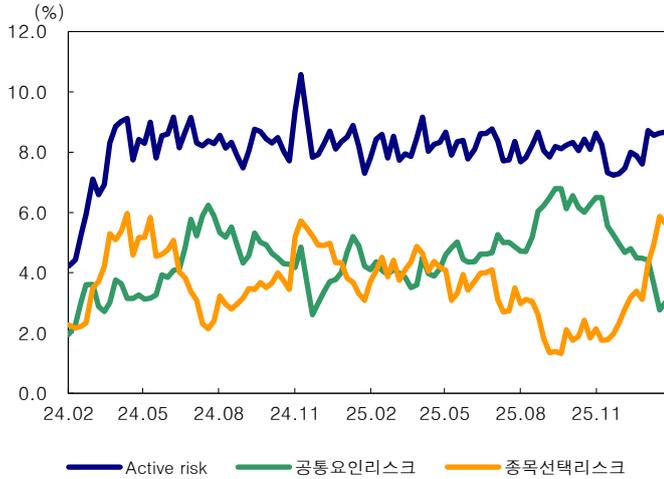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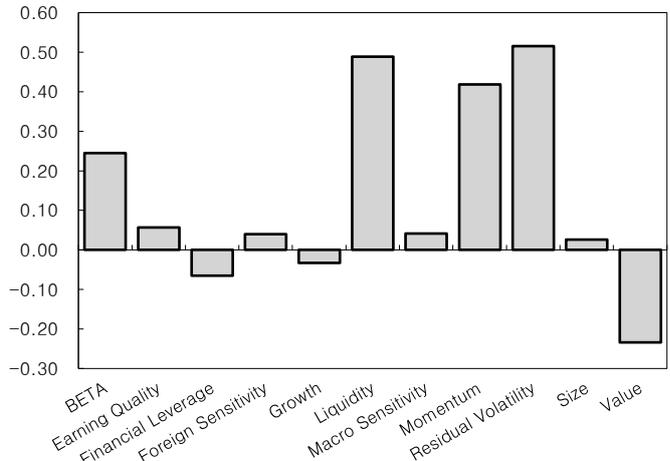
	2026-01-30	2025-12-31
Active Risk ¹	8.67%	7.64%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3.02%	4.49%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3.76%	3.01%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73%	1.49%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5.64%	3.14%
베타	1.24	1.09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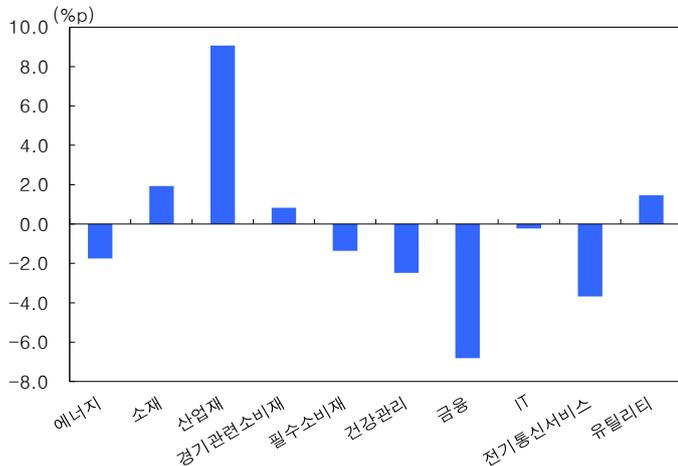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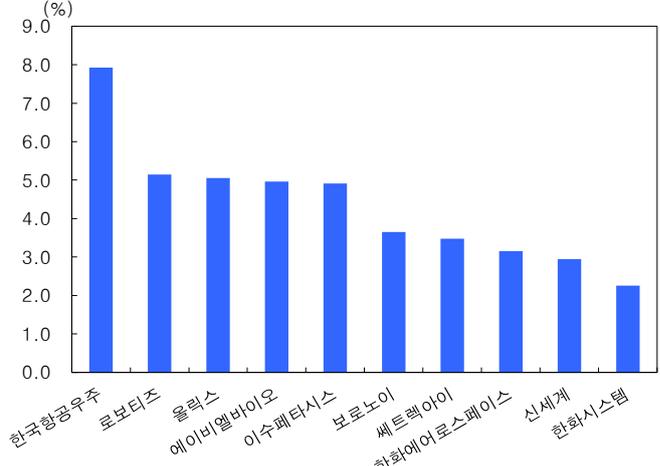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월말 현재, 코리아리더스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8.67%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4개 종목 감소하여, 49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산업재', '유틸리티'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IT', '금융'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2월말 기준으로는 '올릭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이수페타시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Residual Volatil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 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